

익산시, 돌봄 도시락 사업 추진

여름방학 돌봄교실 이용 어린이 900명 대상... 지역 농산물 활용한 건강도시락 제공

“방학 동안 아이 밥걱정 덜어 다행입니다.”

익산시가 학교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는 여름방학 동안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 도시락을 제공한다.

익산시는 7~8월 여름방학 동안 지역 27개 초등학교 학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도시락’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에서 선정된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 돌봄 지원사업’ 일환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중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발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 사업은 신선하고 안전한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방학 중 아이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까지 촉진하는 두 가지 효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시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6개 학교, 27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과 연계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맛과 영양 등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나며 공급 전면 확대에 이어졌다.

우선 익산교육지원청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대상학교 선정을 맡고,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식재료 조달, 도시락 배송을 담당한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인 ‘청년식당’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식단을 바탕으로 맛있는 도시락을 만

든다. 특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시설 청결도와 식재료 보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돌봄 도시락의 공적영역 시스템을 구축해 방학중 돌봄부담 경감,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도농상생 도모에 기여한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며 “아이들에게 영양만점 도시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BTS 포토투어·릴스 공모전

내달 8일까지 숨겨진 방탄소년단 멤버 찾아 인증샷 공유

군산시는 8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군산 곳곳에 그려진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다양한 벽화를 찾아 인증샷을 촬영하는 ‘군산 포토투어 여름편’과 릴스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상시 운영하던 포토투어와 달리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한시적으로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포토투어 참가는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들은 군산시 내 BTS 9곳 벽화 중 7곳을 방문하여 벽화와 함께 얼굴이 나오는 인증샷을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다만, 이때 해시태그(#군산포토투어, #군산BTS투어, #festival_maniacc)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인증샷 업로드 후에 군산에서 소비한 1만원 이상 영수증을 포함하여 카카오톡 채널에 전송하면 받고 싶은 리워드를 선택할 수 있다. 리워드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1만원권 외 2종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 지급된다.

릴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BTS 모든 벽화 9곳에서 얼굴이 나오도록 릴스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때도 필수 해시태그(#군산포토투어, #군산BTS투어, #festival_maniacc)를 포함해 아하며, 공모전 상금은 총 350만원으로 작품상과 기술상, 호응도로 평가한다.

군산시는 BTS가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팬을 보유한 그룹인 만큼 이번 군산 포토투어 여름편과 릴스 공모전은 BTS 팬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군산에서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스탬프투어와 포토투어도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2024년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익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지난 2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2024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7개 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29개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시민참여국장을 초빙해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의 우수사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 등을 진행했다.

익산시는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 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 제안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건강한우리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실시

군산시보건소와 군산시체육관 리통합지원센터는 고품격된 농촌마을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8월 5~9일까지 ‘건강한 우리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노인 음주문제, 노인 우울 및 치매 조기검진 그리고 만성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북 군산의료원,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군산시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며 군산시 옥구읍 신기마을 등 옥구읍 소재 6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인 우울·치매 검사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 다양한 기초 건강검사를 병행해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의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적기에 시작해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후 군산시보건소는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최고의 숙련기술자 ‘군산시 명장’ 공개 모집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방문 접수... 우수 기술인 3명 이내 선정

군산시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2024년 군산시 명장’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기계설계, 금속재료, 공예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에 종사하는 우수한 기술인 중에서 3명 이내 명장을 선정하여 우대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한 시민 중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심사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

문가, 대학교수 등 직종별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명장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기술 숙련도, 전문성, 숙련기술 발전 및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시 홈페이지 명장코너에 등재된다. 또한, ‘군산시 명장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 직종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과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명장의 숙련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

현재 군산시 명장은 2021년 제1대 명

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개 직종(조리, 미용, 제과·제빵, 화훼장식) 5명의 군산시 명장이 선정되었다.

5명의 명장들은 지역 숙련기술 발전과 계승을 위하여 신기술 개발, 지역 사회 재능기부, 기술강의, 후학 양성 등에 매진하고 있다.

명장 모집 공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26일까지이다. 신청은 읍면동장, 시 소재 기업체의 장, 각 업종별 협회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454-435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배달형 외식 창업 꿈꾸는 청년 지원한다

익산음식식품교육문화원, 23일까지 청년공유주방 예비창업자 모집

창업 교육·컨설팅, 임대료 50% 감면, 공공요금, 배달 용기 등 지원

익산시가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5월부터 23일까지 ‘제2기 청년공유주방’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청년공유주방은 청년의 가능성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창업가 육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민 중 배달형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7평형 규모에 입주할 2개소를 모집한다. 신청은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hye0164@korea.kr)로 할 수 있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063-859-5475)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달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까지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2년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비 창업자에게는 임대료 50% 감면과 기본 위생 설비, 운영 마케팅, 공공요금, 배달 용기 등 특별 지원이 뒤따른다.

채수훈 위생과장은 “외식 창업에 대한 정보와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 주저

청년공유주방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모집기간** 2024. 8. 5.(월) ~ 8. 23.(금)
- 모집인원** 2개소
- 모집대상** 익산시 청년(만19세 ~ 39세 이하) 중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외식 창업분야(단, 타코야키 제외)
-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자우편(hye0164@korea.kr) 우편(익산시 우편번호 1397 통문 위생과)
- 신청장소**
 - 사무실: 위생과(☎ 859-5475)
 - 이메일: hye0164@korea.kr
 - 팩스: 859-5475
- 문의사항** ☎ 859-5475 위생과 위생관리계

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공유주방을 통해 창업 영역을 창조해 나갈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층 건물로 1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계획과 2층 청년공유주방 3개소, 3층에서 요리문화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중국 진강시, 자매결연 25주년 맞아 익산시 방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진강시 개발단지 간 교류·협력 방법 논의 등

익산시는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진강시 인민대표회의 대표단 8명이 2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익산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익산시가 진강시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이뤄졌으며,

양 도시는 상호 방문을 통해 우호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진강시인대 대표단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진강시 개발단지와 교류 및 협력 방법을 논의했다.

이어 보석박물관 방문 등을 통해 문화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잠시 중

단됐던 축구 친선경기를 내년부터 재개하는데 뜻을 모았다.

익산시는 이번 방문으로 케이(K)-푸드의 대표주자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진강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식품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